



10주년 광주독립영화제

2~5일 광주독립영화관...장·단편 41편 상영

광주독립영화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로 구성된 광주독립영화협회의 주최로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한 광주독립영화제는 그간 '살아 있다', '구미가 땀긴다' 등을 주제로 해마다 다양한 독립영화를 선보여왔다. 올해는 10회를 맞아 광주독립영화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10회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이순학)가 2일부터 5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단편영화 41편을 선보인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10+10'으로 광주독립영화제 1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독립영화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번 영화제의 특징은 '광주영화'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영화제에서는 광주감독들의 신작과 '오월광주'를 담고 있는 영화 그리고 광주와 연관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10주년을 기념해 포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전 작품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개막작에는 김경자 감독의 '청년 윤한봉'이 선정됐다. 광주민중항쟁의 배우 인물로 지목된 윤한봉은 미국으로 밀항해 민족학교와 한청련(한국청년연합) 등을 조직해 활동했다. 영화는 80년 5월 광주를 지키지 못한 죄의식에 시달린 윤한봉의 삶을 조명한다.

'5월 이야기' 섹션에서는 각양각색으로 '오월광주'를 다룬 6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석류꽃 필 때 좁은 전복지역의 5·18민주화운동을 추적하며, '스무살'은 강원대 학생들이 겪은 5·18을 이야기한다. 이밖에 '방안의 꼬끼리', '손 거역 모자이크', '5월의 버스', '싸!싸!싸!싸!'도 상영한다.

'단편신작선'은 광주감독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총 13편의 신작들이 소개되는 '단편신작선'에서는 광주영화의 대표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신작 3편 '고마운 사람', '연기연습', '행인'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엔딩을 찾아

기념포럼, 역대 포스터 전시 '광주영화인의 밤' 시간도 마련

서', '악몽의 원리', '그들 각자의 영화관', '오월의 만다라', '미몽', '행인', '행복한 순간을 담아드립니다' 등을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신작선'에서는 재일교포 박영이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본 5·18을 담은 '우리가 살던 오월은'을 포함해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변화', '래미, 세월호를 추모하다', '징하게 이빠네' 등의 작품이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넥스트10 신작선'에서는 광주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영상콘텐츠 11편을 선보인다.

폐막작 '피아노 프리즘'은 오재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영화는 은퇴한 화가이자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주인공이 어느날 한 기획자로부터 단독 공연을 제안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광주독립영화관 1층 라운지에서는 역대 광주독립영화제



김경자 감독 '청년 윤한봉'

의 포스터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며, 4일 오후 7시에는 '광주, 영화가 필요한 시간' 상영 후 '광주'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10주년 기념포럼 '광주, 영화가 필요한 시간. 10년 후'가 열린다. 이어 같은날 밤 9시부터는 광주영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광주영화인의 밤'이 마련된다. 무료관람.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 '1984 최동원' 조은성 감독 등 관객과 대화

5일 '너에게 가는 길' 변규리 감독

광주극장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독립영화 상영 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을 마련했다.

'1984 최동원'의 GV가 1일 오후 7시10분 영화 상영 후 열린다. 이날 GV에는 조은성 감독이 참석해 영화의 제작과정을 비롯해 롯데 자이언츠 무쇠팔 고(故) 최동원 투수를 기억하는 야구인들의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줄 예정이다.

자식의 커밍아웃을 겪은 두 엄마의 여정과 성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의 GV는 5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이날 GV에는 변규리 감독과 성소수자부모모임(#PFLAG)의 회원이자 영화 출연자인 '나비' 그리고 이형상 PD가 참석하고 진행은 광주 성소수자상담센터 '큐앤아이' 활동가와 광주여성민우회 성교육강사 '동루'가 함께 맡는다.

12일(오후 2시30분) 힙합을 좋아하는 사춘기 두 소년의 성장을 다룬 영화 '라임크라임' 상영 후에는 공동연출 이승환·유재욱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진행은 문학단체 공통점의 이서영 작가가 맡았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예향



국악 대중화 '조선 팝, 국악이 날다' 해외문화기행 '예술의 도시' 프라하

트로트에 빠진 게 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는 국악 전성시대다. '조선판스타'나 '풍류대장' 등 TV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고 퓨전 국악과 크로스오버 곡은 유튜브에서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2월호는 특집 '조선팝, 국악이 날다'를 통해 고리타분하다고 외면받던 국악이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고 국악의 매력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예향 초대석은 연극배우 윤석화를 찾아간다. 윤석화는 1975년 연극 '물방'으로 데뷔해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척박한 한국 연극무대를 지켜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연기인생을 돌아보는 '윤석화 아카이브' 프로젝트 첫 순서로 1980-90년대 공연했던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세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배우를 만나 오래도록 무대에 설 수 있게 한 왕동력과 연극 열정에 대해 들었다.

송년호 기획으로 준비한 올 한 해 지역 문화계를 결산하는 시간.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한데도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며 활동을 넓혀간 한 해였다.

미술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까지 3개의 메가 예술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공연계도 소규모 대면공연이 이어지고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무대를 채워나갔다. 문화계는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의 건강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도서들이 인기를 끌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남관광 특별기획 '로컬 여행'과 '원조 한류 관광'을 중 국어 번역본과 함께 준비했다. 여행과 농

가소독을 연계시킨 강진군의 '푸소(FUSO) 프로그램과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로컬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구례 운조루와 쌍산재 등 고택(古宅) 체험 역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 관광을 비롯해 역사문화를 품은 고택과 전통정원 등 찾아가는 원조 한류관광에 대해 살펴본다.

예향이 찾아가는 화제의 문화현장은 '한국 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전이 열리고 있는 정읍시립미술관이다.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고 오지호 화백의 '남향집'에서부터 황재형 작가의 '황지 330' 등 전남 출신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선보인다. 정읍에서 남도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문화 나들이로 추천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외문화기행 첫 번째 여행지는 '예술의 도시' 프라하다. 인적 붐볐던 프라하 카를교에 다시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지개를 켜고 있다.

이외에 여행자의 시선으로 광주·전남 숨겨진 관광매력을 찾아나서는 '매력물담사대' 일정을 따라가 봤다. 탐사대가 찾아가는 곳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제8권 역인 목포·광주·나주·담양이다. 또 한국의 산사를 가다 깊은 불심 단아한 모습, 봉황 설화 간직한 고찰 봉정사, 12년만의 개인전 '나는 너다'를 선보인 화가 정희승, 이적 2년차에 홀드왕을 거머쥔 KIA타이거즈 불펜 투수 장현식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두번째 호랑가시나무 숲속영화제

3~5일 오웬기념각·호랑가시나무숲속

제2회 호랑가시나무 숲속 영화제가 3~5일 오웬기념각과 호랑가시나무숲속(호랑가시나무게스트하우스 옆)에서 열린다.

지난해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들이 모여 시작한 '호랑가시나무 숲속 영화제'는 올해 순수가 바통을 이어 받아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예술과 현실,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진행하며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 감독, 배우를 비롯해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들과 함께하는 대화시간도 마련한다.

영화제는 3일 오웬기념각에서 박범훈 감독의 강연과 3편의 단편영화 상영으로 시작한다.

박범훈 감독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직업으로써

의 영상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주근깨', '살'이 상영된다.

이후 오후 6시30분에는 배우 임성연과 김영남 감독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리며, 이진호 감독의 '액션히어로'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4일 오후 5시부터는 '내 차례', '환불', '나의 세라씨' 등이 상영된다. 오후 7시부터는 '유리 정원'을 선보인 뒤 신수원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한다.

5일 행사는 호랑가시나무 숲속에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전운찬 프로듀서가 '프로듀서가 바라본 영화 현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들의 '바람', '어떤 노부부의 집 프



심찬양 감독 '다시 만난 날들'

로젝트', '커피와 담배' 등을 선보인다. 폐막작 '다시 만난 날들'(심찬양 감독)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